

# '8강'보다 값진 '경험'...4년 뒤 기대된다



22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가 3대0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 마라도나, FIFA 회장 도전

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55)가 차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직에 도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한국시간) 우루과이 언론인 빅토르 우고 모랄레스는 마라도나가 FIFA 부패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돼 사의를 표한 제프 블라터 회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모랄레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마라도나가 FIFA의 부패문제와 싸우기로 마음먹었고 변화를 위해 FIFA 회장에 출마하려 한다"면서 "마라도나가 내게 출마 계획을 밝혔고 외부에 알려도 좋다고 승인했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마라도나가 FIFA 회장직 출마에 대해 기대하면서 '나는 후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야구, 올림픽서 보나

###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1차 심사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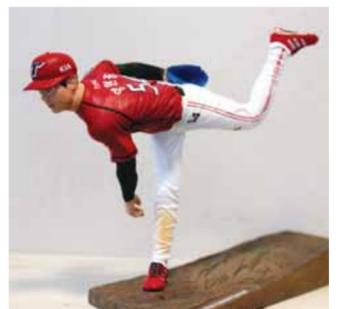
야구-소프트볼과 스쿼시, 볼링 등 8개 종목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1차 심사를 통과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2일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제안서를 낸 26개 종목 가운데 1차로 야구-소프트볼과 스쿼시, 볼링 등 8개 종목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가라데, 롤러 스ports,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우슈까지 총 8개다.

이 가운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진 야구-소프트볼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8개 종목 국제경기연맹은 8월7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조직위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조직위는 9월30일까지 IOC에 최종 추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IOC가 추천받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은 2020년 대회 정식 종목에 포함할지는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한다. /연합뉴스



## 양현종 팝니다

### KIA, 피규어 제작 500개 한정판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 양현종의 피규어를 한정판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피규어는 양현종의 역동적인 투구폼을 재현한 것으로 투구 동작에 따른 옷 주름, 손등의 힘줄, 마운드 흙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마운드 조각판엔 양현종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어 소장 가치를 더한다.

500개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피규어의 가격은 15만원으로 1번부터 500까지 번호가 표기돼 있다. 23일 오후 1시부터 주문 예약을 할 수 있다. 26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하며, 결제 순서에 따라 배송한다.

상품은 KIA타이거즈 공식 상품판매업체인 비전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vjkor.com>)와 전화(1899-1949)를 통해 예약 및 구입할 수 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상품숍에서도 판매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FIFA랭킹 3위 프랑스 높은 벽 실감 0-3 패 1승1무2패 성적 12년전보다 공·수 크게 향상 전가을·조소현·유영아 등 활약...가능성 확인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16강에서 탈락했다.

FIFA 랭킹 18위인 한국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프랑스(3위)와의 16강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스페인(14위)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한국은 여세를 몰아 프랑스를 꺾고 8강까지 넘봤으나 그러기에는 실력 차가 워낙 컸다.

운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완패로 대회 목표였던 월드컵 본선 첫 승과 16강 진출의 성

과에 만족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세계 여자 축구의 벽은 높았지만, 무엇보다 세계 강호들과 해볼 만한 경기를 펼침으로써 4년 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혔다.

2003년 첫 출전한 월드컵에서 3전 전패의 수모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회에서는 16강을 포함 1승1무2패의 성적을 남겼다. 11골을 허용하고 1골만을 넣었던 12년 전보다 9골 실점에 4골의 득점을 올리며 공격과 수비 모두 크게 좋아졌다. 브라질에는 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한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승리를 눈앞까지 가져왔고, 스페인 전에서는 역전승을 하며 경기를 치를수록 기량도 향상됐다.

이제 태극 남자들은 소속팀으로 복귀해 2019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또한 번의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4년 뒤 월드컵이 기대되는 것은 대표팀이 이번 대회 16강 진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월드컵 경험을 가진 선수가 박은선(로시안카)과 김정미(인천현대제철) 밖에 없었지만, 4년 뒤에는 대부분 월드컵 경험을 안고 뛰게 된다. 그 선수에는 역시 '지메시' 지소연(헬시 레디스)이 있다. 지소연은 상대 팀의 집중 견제로 이번 대회 페널티킥 1골에 그치며 기대했던 톱 클래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16강 전에서는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아예 출전조차 못했다. 그

런 만큼 소속팀에서 절치부심하며 누구보다 프랑스 여자월드컵을 손꼽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2년을 기다린 월드컵에서 발목 부상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박은선(로시안카) 역시 마지막 월드컵이 될 지도 모를 4년 뒤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무릎 부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빠진 여민지(대전포스토토) 역시 부상에서 회복해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전에서 헤딩골을 넣었던 전가을(현대제철), 멋진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두 개 기록한 강유미(화천 KSP), 스페인 동점골의 주인공 조소현(현대제철), 스트라이커 유영아(현대제철) 등의 활약에서 4년 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태극 남자들이 4년 뒤 월드컵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들의 새로운 도전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 형님들, 공룡 잡으러 나간다



## KIA, 주중 NC·주말 두산전

### NC전 올 2승 7패 약세...최영필·김태영 불펜 선봉

### 빠른 발 두산엔 발야구로 맞붙...팀 4100도루 -6

'호랑이 군단'의 징크스 깨기. 이번에는 공룡과의 싸움이다.

KIA 타이거즈의 조용한 질주다.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타선 탓에 시원한 연승은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안정된 마운드 덕분에 아찔한 연패도 없이 고요하게 2015시즌을 풀어가고 있다.

지난주 전적은 3승2패. LG와의 주중 원정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지만 주말 kt와의 홈 경기에서 노개임을 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kt 전 8연승으로 5할을 살짝 넘어선 KIA는 5연패에 빠진 한화를 밀어내고 5위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기본 총계 휴일을 보낸 KIA에게 막강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다. KIA는 주중 마산으로 가 NC를 만나 뒤 주말에는 안방에서 두산을 상대해야 한다. 징크스 깨기와 상위 점하기가 이번 시리즈의 키워드다.

올 시즌 KIA는 길었던 넥센 연패를 끊어내면서 732일 만의 위닝시리즈를 만들어냈고, 삼성을 상대로는 4년 만의 위닝 시리즈를 앞세워 4승4패로 균형을 맞추면서 넥센·삼성 징크스를 깼다. 이젠 NC다. 올 시즌에도 KIA는 무려 7승을 NC에게 내줬다. 가져온 승은 2승에 불과하다.

NC 앞에만 서면 좌이지는 마운드였다. 올 시즌 KIA의 팀 평균자책점은 4.36이지만 NC전은 6.15로 뛰어오른다. 9경기에서 11개의 피홈런을 내줬고, 사사구도 50개를 남발했다.

무섭게 돌아가는 NC 방망이를 봉쇄하기 위해 연료의 불펜이 나선다. 5월 부진했던 최영필과 김태영이 다시 필승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영필은 지난 19일 kt와의 경기에서 조기 강판된 김진우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등판, 1.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

다. 41세 1개월 5일의 나이에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 역대 최고령 투수 3위 기록을 경신했다.

마무리 윤석민도 에너지가 넘친다. 지난 16일 LG와의 경기에서 시즌 12번째 세이브를 수확한 윤석민은 날뛴 팀 공격 탓에 임시 휴업 중이다.

주말에는 4승4패로 험겨루기를 하고 있는 두산과의 만남이다. 올 시즌 두 팀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한 번씩 위닝시리즈를 가져갔고, 비가 낀 시리즈에는 1승1패를 나눠 가졌다. 두 차례 연장 승부도 치렀다.

빈틈을 파고들 '발'이 필요하다. 지난주 승리를 부른 적극적인 주루가 있었다. 16일 LG전에서는 최용규가 상대 배터리의 타이밍을 뺏은 3루 도루를 바탕으로 중요한 득점을 올렸고, 21일에는 전력 질주에 나선 강한울이 2연속 비디오 판독이라는 진기록 속에 빅이닝을 이끌었다.

폭발력 부족의 타선에 힘을 더해줄 스피드다. 기록도 준비되고 있다. 김일권-이순철-이종범 등 리그를 대표한 대도들이 만들어 놓은 팀 도루 1위 자리. 앞으로 6개의 베이스를 더 훔치면 KIA는 프로야구 첫 4100도루를 채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영필

김태영

###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23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속
1 NC	39	27	1	0.591	4승
2 삼성	39	28	0	0.582	2승
3 두산	37	27	0	0.578	1승
4 넥센	38	30	1	0.559	1승
5 KIA	33	32	0	0.508	2승
6 한화	35	34	0	0.507	5패
7 SK	32	32	1	0.500	2패
8 롯데	32	36	0	0.471	1패
9 LG	30	38	1	0.441	1패
10 kt	19	50	0	0.275	3패